

## 스태이플스 센터 이름 변경된다



▲ LA 스타이플스 센터, 사진=shutterstock

LA 스타이플스 센터의 공식 명칭이 바뀐다.

17일 농구전문매체 '점프볼'에 따르면 LA 스타이플스 센터의 명칭이 다음달 25일부터 새로운 이름인 '크립토닷컴 아레나(Crypto.com Arena)'로 바뀐다.

스태이플스 센터는 지난 1999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총 22년 동안 LA를 대표했던 경기장이었다. 간판 팀인 LA 레이커스는 스타이플스 센터서 총 6번의 NBA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WNBA LA 스파르칸스

역시 세 번의 우승컵을 차지, 영광의 순간을 가졌다.

스태이플스 센터는 NBA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LA 스파르칸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LA 킹스 등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스포츠 행사 외에도 매년 콘서트, 시상식, 기타 유명 행사 등으로 사용됐던 스타이플스 센터는 지난 2009년, 안토니오 마가리토와 세인 모슬리의 복싱 경기로 최다 관중 기록(2만 820명)도 세운 바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스타이플스 센터의 새로운 주인이 될 크립토닷컴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다.

스태이플스 센터가 개장 이후 처음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크립토닷컴이 7억 달러를 내고 경기장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며 "자세한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7억 달러는 역대 스포츠 경기장 명칭 사용 금액 가운데 최고액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변화의 시작은 다음 달 크리스마스 당일,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츠와의 시즌 첫 격돌부터 출발한다.

## 페더러, 호주오픈 출전 불가능할 듯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의 코트 복귀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영국 BBC는 전날 페더러의 코치 이반 루비치치의 말을 인용해 "페더러가 내년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981년생인 페더러는 지난 7월 워싱턴 8강에서 탈락한 뒤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을 접었다. 페더러는 그동안 새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맞춰 복귀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루비치치는 "(페더러의) 호주오픈 출전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없다"면서 "페더러는 여전히 코트에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우승하는 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40대에 접어들어 페더러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더러는 라파엘 나달(스페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함께 역대 남자 테니스 메이저 최다승 타이인 20승을 기록 중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30대 후반에도 매 대회마다 우승권에서 경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잦은 부상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세계 랭킹도 16위까지 밀려났다.

내년 1월 중순 개막하는 호주오픈은 '빅3'라 불리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모처럼 함께 출전할 대회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9차례나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도 출전 선수에 대한 방역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입장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라서 호주오픈에서 '빅3'의 경기를 모두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 우즈, 목발 없이 걷는 모습 포착



▲ 타이거 우즈, 사진=foxnews.com

목발 없이 걷는 타이거 우즈(46)의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폭스스포츠는 전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오른쪽 다리에 검은색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걸었지만 목발은 짚지 않은 우즈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폭스스포츠는 "우즈는 차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 속 우즈는 아주 천천히 호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단을 오를 때 다소 힘겨워하는 했지만 목발 없이 걸었다.

우즈는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재활 훈련을 해왔다. 지난달 아들 찰리가 출전한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우즈는 목발이나 카트 없이 골프채에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이 매체는 "우즈가 수술 후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에서 재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열리는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 컵 미국 팀 단장인 데이비스 러브 3세는 우즈에게 프레지던츠컵에 부단장으로 합류하기를 요청했다. 러브 3세는 "타이거가 계속 필드에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단장이었을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 이전에 그는 '단장 역할도 좋았지만 선수로 뛰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회복해서 선수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 싸인 플러스 ★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 트로피

세리토스점

#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